

## V.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정치·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 1. 코스타리카의 정치·경제 동향

#### 가. 일반개황

일 반	위 치 : 북으로 니카라과, 남으로 파나마와 접경 적 : 51천 km <sup>2</sup> (한반도의 1/4) 후 : 열대(저지대), 온대(고지대) 인 구 : 4.6백만 명(2009) 도 : San Jose(1.2백만 명) 민 족 : 백인(메스티조 포함)(94%), 흑인(3%), 기타(3%) 언 어 : 스페인어 종 교 : 가톨릭(국교)
정 치	독 립 일 : 1821. 9. 15(스페인) 정 부 형 태 : 대통령중심제(공화제) 국 가 원 수 : Abel Pacheco 대통령 의 회 : 단원제(57석) 주 요 정 당 : 국민해방당(PLN), 자유운동당(PLN),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IDB, IFC, IDA, OAS, CACM, WTO 등
경 제	G D P : 293억 달러(2009) 1 인 당 G D P : 6,370달러(2009) 화 폐 단 위 : Colón(C) 회 계 연 도 : 1. 1. ~ 12. 31 산업구조(2008) : 농림수산업 8%, 제조업 29%, 서비스업 63% 주 요 수 출 품 : 반도체, 바나나, 육류 및 어류, 커피 주 요 수 입 품 : 원자재, 소비재, 자본재 주 요 부 존 자 원 : 농수산자원, 금, 은, 보크사이트 경 제 적 강 점 : DR-CAFTA 체결로 미국시장 접근 유리 경 제 적 약 점 : 외채부담 과중, 수출구조 편중

## 나. 약사

- 1509년 : 콜롬버스의 4차 항해시 발견되어 스페인의 식민지로 편입
- 1821년 9월 15일 : 독립 선언
- 1822년 : 멕시코와 합병
- 1823년 : 중미연방의 일원으로 멕시코로부터 독립
- 1838년 : 중미연방으로부터 탈퇴
- 1848년 : 공화국 선포
- 1949년 :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내란 발생, 자유당의 피게레스 (Jose Figueres Ferrer)가 반정부군을 지휘, 승리한 후 임시대통령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군대철폐, 여성투표권 인정 등 진보정책을 실시
- 1958년 : 보수당의 Mario Echandi Jimenez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1998년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로드리게스(Miguel Angel Rodriguez Echeverria) 대통령 취임
- 2002년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파체코(Abel Pacheco) 대통령 취임
- 2006년 : 1987년 중미 내전 종식을 위한 중재활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던 아리아스 대통령이 2006년 재선

— 2010년 : 2월 선거에서 여당의 Laura Chinchilla 후보가 코스타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5월 취임

## 다.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f</sup>
경 제 성 장 률	8.8	7.9	2.8	-1.1	3.7
재 정 수 지 / GDP	-0.7	0.6	0.2	-3.0	-3.6
소비자물가상승률	9.4	10.8	13.9	4.0	7.3

#### □ 경제성장세 회복 전망

- 코스타리카는 1990년대 중반 미국 Intel사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친환경 관광산업과 하이테크 수출산업 국가로 탈바꿈하였고, 이후 고도 성장세를 지속해 왔음.
- 2006~07년 동안 7.9%~8.8%에 이르는 고도성장이 지속되었으나, 200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8%로 낮아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침체를 보임에 따라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관광업도 부진을 보였음.
- 2009년 들어서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1.1%)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4/4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에 힘입어 수출부문의 제조업(IT 부문)과 농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6.1%이며 12개월 경제성장률은 5.9%를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이나 관광업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금년 경제성장률은 3.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물가상승세 지속

- 물가는 2000년 이후 10% 내외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08년에는 고유가 지속과 식료품 가격 상승 그리고 버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크게 상승함.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 전환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물가가 하향세로 전환되었고,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30년 간 가장 낮은 4.0%를 기록함.
- 금년 들어서도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콜론화의 강세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4%±2%)를 소폭 상회하는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5월 초 현재 콜론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달러당 520콜론수준으로 2009년 9월 말 달러당 590콜론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약 12% 평가절상됨.

#### □ 재정적자 축소문제가 주요 경제 현안

- 재정수지는 최근 수년간 균형 또는 소폭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 1월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플란 에스꾸도(Plan

V.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정치·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Escudo)를 실시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2009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로 크게 증가함.

- 플란 에스쿠도는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자확대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차입을 통해 조달될 예정임.

— 금년 5월 출범한 친치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그대로 승계하여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금년에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3.3%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코스타리카 의회가 금년초 의원 급여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정수지 불균형 확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국제경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1,023	-1,646	-2,729	-614	-1,502
경상수지/GDP	-4.5	-6.3	-9.1	-2.1	-3.8
상 품 수 지	-2,727	-2,986	-5,014	-2,024	-3,289
수 출	8,102	9,300	9,554	8,847	10,402
수 입	10,829	12,285	14,569	10,871	13,691
외 환 보 유 액	3,115	4,114	3,799	4,066	4,833
총외채잔액	6,591	7,846	8,931	8,600	9,101
총외채/GDP	29.3	29.8	29.9	29.3	22.9
D. S. R.	4.7	4.4	6.2	6.4	5.7

##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코스타리카는 소비재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동국 수출의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Intel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Intel 코스타리카 현지법인의 주력 상품은 서버용 프로세서이며, 세계 서버용 프로세서 생산의 90%를 담당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약 20억 달러 늘어난 5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GDP의 -9.1%인 27억 달러로 증가함.
- 그러나 2009년에는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급감함에 따라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30억 달러가 줄어든 20억 달러를 기록함.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GDP의 -2.1%인 6.1억 달러로 크게 축소됨.
- 금년 들어서는 세계경제 회복과 더불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콜론화의 강세 지속과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폭이 더 커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각각 33억 달러와 1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자본 유입 지속으로 외환보유액 증가

- 2009년에는 경상수지가 6.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가 이 보다 큰 7.2억 달러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2.6억 달러 늘어난 4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 FDI 유입액은 2007~08년의 19억 달러와 20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한 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포트폴리오투자는 6.7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음.
- 금년 들어서도 경기 회복과 더불어 FDI 유입이 증가하고, 콜론화의 강세 지속과 국내외 이자율 차이로 인해 포트폴리오 투자도 순유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말 외환보유액은 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EU, 중국 및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 타결

- 2004년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인 DR-CAFTA가 체결된 데 이어, 금년 5월 EU와 중미 6개국(중미공동시장 5개국과 파나마)과의 FTA가 타결되었고, 코스타리카와 중국 및 싱가포르와의 FTA도 타결되었음.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 EU와의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대 EU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중국 및 싱가포르와의 FTA 타결로 대 아시아 수출 증가도 기대되고 있음.

## 라. 정치·사회동향

### □ 민주헌정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민주 헌정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가장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임. 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으며, 여타 중미 국가들과 달리 군부 쿠데타나 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해 대통령이 중도하차한 적이 없는 등 정치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임.
- 코스타리카 헌법은 민주정치제도의 최대 위협인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속 재선 불가, 선거 기간 중 선거 관리위원회에 행정·경찰권 부여를 통한 공명선거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대의 민주 헌정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1949년 군대를 폐지하였음.

### □ 금년 5월 친치야 정부 출범

- 금년 2월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 여당후보인 국민해방당(PLN)의 라우라 친치야(Laura Chinchilla)가 승리하여 5월 8일 코스타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음. 친치야는 전임 아리아스(Arias) 정부에서 부통령과 법무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아리아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무난히 당선되었음.
- 그러나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해방당(PLN)이 총의석수 57석 중 과반수에 모자라는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9석을 차지한 중도우파 야당인 자유운동당(ML)과 정책 연대를 구성함.

□ 사회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양호

- 중미 국가 중 비교적 평등한 사회구조와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른 중남미국가들과 달리 범죄발생률이 낮으며, 실업률도 수년째 6%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민주적인 문제해결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사회안정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 전통적으로 대미우호, 평화선린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미주기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음. 1949년 군대를 폐지한 이후 영구 중립국임을 선포하여 주변국과의 분쟁가능성은 낮음.
- 중미통합체제(SICA)에 참여하고 있으며, 카리브해 연안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면서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여타 중미 국가들과 함께 대만의 전통적 우방국이었으나, 2007년 6월 대만과 단교하는 동시에 중국과 수교함. 이후 중국은 코스타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초 중국과 코스타리카의 FTA가 타결됨.

## 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코스타리카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대체로 양호함. 정부의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안정된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으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지속 등으로 인해 BB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OECD : 3등급('08. 6) → 3등급('09. 6)
- Moody's : Ba1('98.8)
- S&P : BB('98.10)
- Fitch : BB('00.5)

### □ 주요 ECA 지원태도

— US EXIM, ECGD 등 주요 ECA의 동국에 대한 지원 방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US Exim : 최고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한도적용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

### □ 총외채 규모는 증가 추세

— 동국은 1980년대 초 외채위기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0년에 브래디 플랜에 의거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였고 1991년과 1995년에 2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국제기구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할 바 있음.

- 장기저리의 외채조달을 통해 국내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채무 재조정정책 추진으로 총외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외채비중은 30%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채상환부담은 크지 않으며, 외채상환태도도 양호

- 2009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GDP의 29.3%인 86억 달러이며, 수출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10% 미만으로 매우 양호함.
- 외환보유액 증기추세 및 수출 대비 낮은 원리금 상환 그리고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코스타리카에서 외채상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바. 향후 전망

- 코스타리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금년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재정수지 적자 전환과 경상수지의 대규모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거시경제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금년 5월 출범한 친치야 정부는 의회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야당과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개혁정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확고하고 국내외의 정치·사회적 안정성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크지 않으며, 외환보유액 수준과 외채상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외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또한, 미국에 이어 EU, 중국,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수출 증대, 투자 촉진 및 FDI 유입 증가 등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